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청구 논문

고등학교 학생선거활동 참여정도가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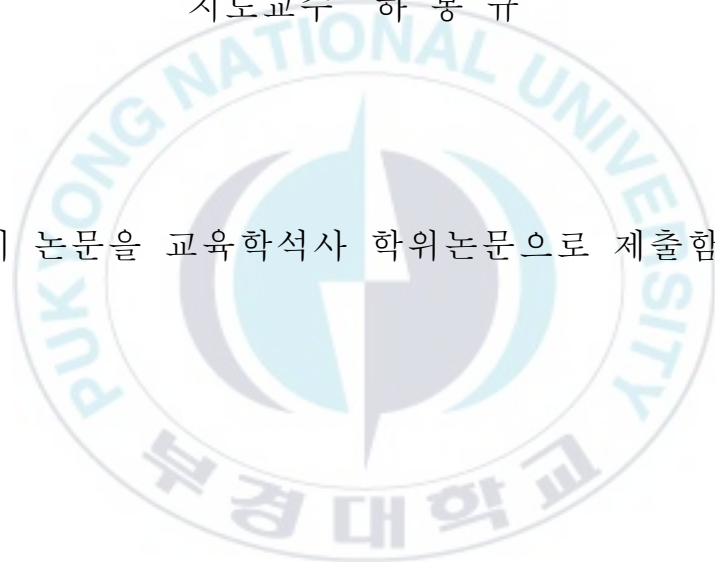
전 병 건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 고등학교 학생선거활동 참여정도가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하 봉 규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전 병 건

전병건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8월 일



주 심 정치학박사 이 대 희 (인)

위 원 정치학박사 하 봉 규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이 성 봉 (인)

# 목 차

<i>Abstract</i> .....	iv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의의.....	2
3. 연구의 제한점.....	2
<b>II. 이론적 배경</b> .....	<b>4</b>
1. 정치의식의 개념 과 청소년.....	4
가. 정치의식의 개념.....	4
나. 청소년의 정치사회화 와 정치의식 형성.....	6
2. 정치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8
3. 참여의 교육적 효과 .....	20
가. 정치 참여의 개념.....	20
나. 학생선거활동의 참여.....	23
다. 학생선거활동의 교육적 효과.....	25
<b>III. 연구방법 및 결과분석</b> .....	<b>27</b>
1. 연구방법.....	27
가. 연구 변인.....	27
나.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27
2. 연구결과 분석.....	30
가. 학생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치의식의 차이.....	30
나. 학생선거활동 참여 유형과 정치의식의 상관관계.....	46

IV. 결론 및 논의.....	49
참고문헌.....	51
부록.....	53



## 표 목 차

<표 III-1>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부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 행사.....	30
<표 III-2>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투표에 대한 효능감 정도.....	31
<표 III-3>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서명 운동의 효과.....	32
<표 III-4>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에서의 개인적 효능감.....	33
<표 III-5>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치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	34
<표 III-6>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	35
<표 III-7>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	36
<표 III-8>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당에 대한 신뢰감.....	37
<표 III-9>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감.....	38
<표 III-10>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국회에 대한 신뢰감.....	38
<표 III-11>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대중매체를 통한 정치적 관심.....	39
<표 III-12>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투표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도....	40
<표 III-13>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투표에 대한 적극성 정도.....	41
<표 III-14>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참여감....	42
<표 III-15>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치 문제에 대한 토론 정도.....	42
<표 III-16>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치 지식 인지 정도.....	44
<표 III-17> 선거활동 참여 유형과 정치의식의 상관관계.....	47

**The Effect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Degree of Participation  
in Election Activities on Political Awareness**

Byong-Gun Je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degree in election activities on political awareness.

Political awareness can be promoted by the firsthand experience, not simply by the recognition on the importance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political awareness eventually acts as a major element to boost the individual participation in politics, which implies those—political awareness and political participation—are strongly connected with each other. Hence, the enhancement of political awareness can be an essential educative objective. In that way, for most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little chance of experiencing direct political participation, students' election activities in school can provide a worthy opportunity of political participation.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participation degree in school election activities on political awareness, student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direct and indirect participants. The former includes both election helpers and election administrator; the latter indicates the voters. For the testing of the hypothesis that students directly involved in the school election activities are likely to have higher level of political awareness than those who engage in the activities indirectly, a questionnaire survey of 420 high school students of 6 schools in Busan is conducted.

The analyzed result shows the first hypothesis (the direct participation in school election activities by running for it will be more effective in enhancing political awareness than the indirect participation of voting) is proved to be



reasonable by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irect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participation degree, political knowledge. The second hypothesis (the direct participation as an election helper will result in higher enhancement in political awareness than the indirect participation of voting) is verified by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irect participation as an election helper and political efficacy. Lastly, the third hypothesis (the direct participation as an election administrator will result in higher enhancement in political awareness than the indirect participation of voting) is also confirmed by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irect participation as an election administrator and political awareness.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change the prevailing lecturing politics class into a new type of class including direct participation. Furthermore, to make it possible, various programs in which students can extend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need to be developed.

Key words : political awareness, election activities, participation degree, direct participants, indirect participant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치의식의 함양은 단순히 참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직접적인 참여 경험을 통해 길러지게 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정치의식은 개개인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정치참여와 상호 순환적 효과를 가지는 관계가 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고 할 때 정치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한 시민 교육적 목표가 될 수 있다. 현대사회로 들어선 이래 시민교육의 담당자로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있어 학교는 가정의 영향을 대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 영향력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생선거활동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선거활동 참여 정도가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참여의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두어 학생선거활동이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정치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참여한 활동의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집단 의사결정 과정을 훈련하여 자신의 문제와 사회

의 문제에 대한 보다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규범적인 수준에서 강조되어 왔던 참여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여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시민성을 함양시키는 도구로서 참여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 효과를 검증 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의의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현대는 정치 사회적 변화들로 인해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참여가 가지는 교육적 효과를 실제로 검증해 보려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선거활동 참여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민주사회에서 참여가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의 선거활동 참여를 살펴봄으로써 학교활동의 시민 교육적 효과와 의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선거활동의 방안을 모색해보는 계기 또한 제공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정치활동의 적극적 형태인 선거활동을 연구함으로써, 앞으로 선거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의 제한점

이번 연구에는 연구의 환경과 성질상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첫째, 정치의식에 관한 표준화된 조사 도구가 없는 관계로, 연구자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임의의 조사도구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 하였으므로 일반화에는 다소 제한이 따른다.

둘째, 조사 대상자들이 부산광역시 인문계 고등학생들로만 제한하였으므로 전국적인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정치의식의 개념과 청소년

#### 가. 정치의식의 개념

정치의식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양하여 유사한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다. 정치의식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정치문화, 정치적 성향, 정치적 신념, 정치적 태도 등 유사한 용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양한 정치의식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 학자들의 정치의식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겠다. 먼저 정치학 대사전에는, ‘정치체계 속에서 기능 하는 감정이나 관심, 그 결과로서의 의견이나 태도, 신념 등을 체계화한 것의 총칭’(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02)이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자들 또한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극찬(2001)은, 정치의식을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행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와 같은 선택으로 인도하는 의견, 판단, 인상, 감각 등이 작용한다고 전제하고, 사람들의 정치행동을 결정하는 정신작용을 정치의식이라고 보았다. 즉, 정치의식이란 정치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갖는 의식의 총칭이라 정의 하였다. 정득규(1975)는 정치일반 또는 특정한 정치문제에 대해 나타내는 정치행동의 선유정향으로서 정치적 사고와 그것으로부터 연유하는 행동 양식인 태도를 정치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함의영(1972)

은 정치의식을 정치문화와 아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정치인이나 정치사상, 정치문제 등에 대한 인식, 평가, 태도를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용현등(1980)은 정치의식이란 정치적 여러 사물과 사태에 대해서 국민이 갖는 인지적·감정적·행동적 반응성향이라고 규정하였다. 정운무(1982)는 정치의식을 정치적 사상을 형성하는 정도라 말하였으며, 이 정치의식의 형성과정을 정치적 사회화라고 하여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문화이며 정치에 대한 반응을 정치적 태도라고 보고 태도의 표출 형태를 정치행태라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 학자들은 정치의식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외국의 학자들은 정치의식이란 용어 대신에 정치 문화, 정치 태도와 같은 개념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amuel. H. Beer(1958)는 정치문화를 일반문화의 하위문화로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야하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가치관, 신념, 감정적 태도라고 정의했다. L. M. Pye(1968)는 정치문화를 정치과정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고 정치체제내의 행위를 지배하는 기초적인 전제와 규칙을 부여하는 태도, 신념, 정서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어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정치의식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Almond와 Verba(1963)는 정치문화를 사회구성원이 정치적 객체에 대해 갖는 정치적 정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치적 정향(political orientation)이란 정치적 대상에 대해 내면화된 신념과 태도로서 정치체제와 체제의 역할, 그 역할의 수행자, 정치체제의 투입과 산출 등에 대한 인지적 정향(cognitive orientation - 정치체제와 지도자, 체제의 운영에 관한 지식과 신념을 포함), 감정적 정향(affective orientation - 애착이나 소외와 같은 체제에 대한 느낌), 평가적 정향(evaluative orientation - 체제에 대한 판단

이나 견해)등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정치태도 관점에서의 정의를 보면, Massialas는 ‘정치태도를 정치문화의 한 양태로 보고 정치문화는 정치적 구조와 대립되는 것으로 정치 행위에 대한 인지적 정향과 국민 개개인의 정치에 대한 태도와 느낌을 포함한다’ (김충남, 1982, 재인용)고 하였고, 이극찬(2001)은 정치에 대한 기본 태도인 정치태도는 그 사회의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치의식, 정치문화, 정치태도는 조금씩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상호 변증법적인 교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종합하여 보면 정치의식이란 정치인, 정치체제, 정치사상, 정치적 현상에 대하여 인지적, 정의적, 평가적 성향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의식의 개념을 정치현상이나 정치대상에 대해 그들이 갖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반응 성향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 나.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와 정치의식 형성

##### (1) 청소년의 정치사회화

정치사회화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정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체계 수준에서 정치문화의 전수를 정치사회화로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수준에서 개인의 정치적 잠재력을 계발하여 정치 자아와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정치사회화로 보는 관점이다.(Dawson, Prewitt and Dawson, 1997; 김광웅·방은령, 2001).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같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본 것에 불과하며, 체제와 개인, 정치문화와 정치 자아는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양자를 종합하여 정치사회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사회화는 한 사회의 정치양식과 가치 즉 정치문화를 사회구성원인 개인이 배워 내면화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개인이 정치 주체로서 정치정향을 함양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정치사회화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는 성인 시민이 되어서 맞이할 여러 인생 단계들의 정치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간단계이며(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교육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높은 가소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정치사회화는 정신역동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 등에 의해 설명 될 수 있다(김광웅·방은령, 2001).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역동이론은 Freud의 이론을 통해서 정치사회화를 설명한다. Freud는 유아기와 아동기에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개인의 성격과 자아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이라고 보았다. Freud의 관점을 청소년기의 정치사회화에 적용하면 청소년은 가족(또는 부모)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아서 정치의식과 자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Greenstin, Easton, Hess 등에 의하면 부모와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아동이 정치 권위에 대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식을 형성한다고 한다(김광웅·방은령, 2001, 재인용). 이 이론은 정치사회화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을 잘 설명하지만 다른 사회화 매개체의 영향을 소홀히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유아기나 아동기의 경험을 결정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행동주의자의 강화이론과 Bandura의 모방학습이론을 통해서 정치사회화를 설명한다. 강화이론에 의하면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바람직한 반응에 강화(보상)를 줌으로써 개인은 그 반응을 내면화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은 정치사회화에 있어 바람직한 정치의식과 행동적 반응을 보일 때마다 강화를 받음으로써 이 정치의식을



내면화하고 정치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Bandura의 모방학습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모델의 관찰과 모방을 통해 모델과 동일시함으로써 태도와 행동을 학습한다. 모델에는 살아 있는 인간,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 등이 있다(변영계, 2000). 이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은 정치인,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정치적 역할이나 내용 등의 모방을 통해서 정치의식과 행동을 학습한다. 사회학습이론은 정치사회화에 있어 보상이나 대중매체의 역할을 잘 설명하지만 정치사회화를 단순히 자극-반응의 관계로 봄으로써 정치학습자의 능동성을 무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인지발달이론은 Piaget의 동화, 조절, 평형화이론을 통해서 정치사회화를 설명한다. Piaget에 의하면 인지구조를 바탕으로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적 능력을 발달시킨다. 구체적으로 환경으로부터의 정보를 기존의 인지구조에 따라 처리하는 동화와 환경으로부터의 정보를 기존의 인지구조에 따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인지구조를 수정하는 조절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지적 능력은 발달해 간다. Piaget의 인지구조 발달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호작용 외에 성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은 정치환경 또는 문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때로는 정치문화에 동화해가고 때로는 자신의 인지구조를 조절해가면서 정치의식이나 행동을 형성·발전시키게 된다. 이 이론은 정치사회화에 있어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구조의 발달을 잘 설명 하지만, 감정의 발달을 소홀히 취급한다는 문제점이 있다(이동신, 1986).

위와 같은 이론에 의해서 설명되는 청소년의 정치사회화는 가족, 학교, 동료집단, 대중매체 등의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Bar-Tal & Saxe, 1990; Sears, 1990). 가족은 청소년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강력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 학교는 공식적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동료집단은 우정을 토대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정치의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박종남(1997)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치의식형성에 있어서 동료와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매체는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중에서도 신문과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크다(이동신, 1986). 오늘날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보편화된 인터넷이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 (2) 정치사회화 매개체

### (가) 학교 환경 요인

학교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가정, 동료집단, 대중매체 등과 함께 정치의식형성의 주요동인 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 또한 어떤 특정 조건하에서 학교의 영향력은 다른 동인보다 더 클 가능성도 있다. 이는 학교의 환경이 가정과 마찬가지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Key는 학교 제도의 사적 발전과정은 학교가 정치사회의 시민의식을 훈련하는 일차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Merriam도 모든 체제에서 학교는 정치적 공동체에서 행하여지는 공민교육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 역할에서 점증하는 기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백종태, 2001, 재인용) 또한 Almond 와 Verba(1963)는 정치적 의식의 형성에 있어 교육만큼 강력한 변수는 없다고 하며, “교육을 더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정치적 정보와 지식, 더 높은 정치적 현실에의 참여, 효능감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정치적 논의에 더 많이 가담하고 능동적이며 자신감을 표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의 역할은 정치적 활동을 고무하는 지식·능력 및 선택감각을 공급해 준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Dawson 과 K. Prewitt(1977)은 학교는 정치 사회화에 있어서 가장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적이고 중앙 통제적이며 일사불란한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기구보다도 정치사회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학교는 공식적 학과 수업과 과외 활동을 통하여 정치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치의식 형성에 있어 학교환경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정치적 가치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 학교의 환경은 단일의 변화를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의식 형성의 동인으로서 학교환경에 대한 분석관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Massialas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방법, 학급분위기, 학교 내 학생집단, 교사, 학생으로, Langton과 Jennings는 교육과정, 학교 분위기, 교우 집단, 교사로, Dawson과 Prewitt은 교실에서의 공식적 교육과정, 의식생활, 교사의 활동, 학교분위기, 학생 정치조직, 교과외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이양우, 2005,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교환경 요인 중 교과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학생선거활동 참여를 주목하여 이에 따른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 (나) 가정환경 요인

가정은 개개인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사회화 매체이다. 또한 처음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배우고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성격 및 행동유형을 터득하여 사회화 경험의 기초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성격과 인간행동을 연구해 온 많은 연구자들도 인간이 사회의 일반 가치나 행동체계 속으로 사회화되어 가는데 있어서 가정이 중요한 매체라는 견해를 지지하여 왔으며, 사회화과정에 있어서도 가정의 역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하고 있다(김충남, 1973). 물론 가정은 정치적

가치를 수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직되거나 제도화 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의 구성원, 친한 친구, 직장 동료등과 같은 제 1차적 관계는 아주 인간적인 것이며 비교적 비구조적이다. 따라서 개인의 많은 시간이 이 1차적 관계에서 소모되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인지적, 정치적 정보의 전달과 수용은 바로 사회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은 특히 어린 시기에 중요한 생활의 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학습에 있어서 초기 유년기를 결정적인 시기로 보는 학자들은 가정을 중요한 정치사회화의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Hess와 Torney(1967)는 가정은 매개변수로서, 첫째 태도를 전이해 주고, 둘째 부모는 아동에게 모형으로 제시되며, 셋째 가정구조에 있어서 역할기대가 정치대상에도 일반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연구경향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정치적 가치와 경향을 확립하는데 가족의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가정은 정치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정치학습의 한 중요한 국면은 적지 않게 가정 분위기, 가정 구성원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이 접하는 격려의 유형들이 정치적 사고의 발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 내의 상호 접촉의 양, 연대의 밀착도, 그리고 가족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일생을 통해 가정의 역할을 계속 조건화시킨다. 임영철(1986)은 가정환경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가족 구성원간에 상호작용 정도가 많을수록 정치나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감소하고 정치효능감은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에도 부모의 정치태도나 지식수준, 가정환경들이 정치사회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을 여러 연구결과들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연구결과에서도 가정환경

은 정치적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대운(1981)은 학생들의 정치효능감과 부모의 정치에 대한 흥미, 정치에 대한 논의의 빈도 그리고 정치행위 참여도와와의 관계를 측정하였는데, 부모가 정치에 흥미를 가지면 가질수록 또 논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녀들의 효능감은 더 높다고 하였다.

#### (다) 동료집단

동료집단은 비교적 밀접한 유대를 가진 구성원들로 형성된 1차집단의 한 형태로서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동료집단이 정치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시기는 보통 청소년 후기로 보고 있다(Langton, 1969). 정치변화의 해석과 이에 대한 변천 그리고 정치적 역할에 대한 참여준비는 청소년 후기에 이러한 동료집단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무렵에 나타난 정치학습은 초기 가정에서 겪은 기본적인 정치학습을 보다 강화시키기도 한다. 또 동료집단 영향력의 중요성은 집단과 개인과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집단에서 중시하는 가치관의 갈등이 개인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집단의 영향력이 클수록 개인은 그 집단의 가치에 집착하게 되고, 또한 집단의 가치에 집착할수록 개인은 그 집단의 가치에 쉽게 동화되어 간다. 그리고 가치에 대한 정도가 크면 그만큼 사회화의 정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료집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치사회화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실질적 경험적 연구들을 보면, Renshon(1976)은 친구들간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일치도를 조사하였는데, 그들은 친구들과 비교적 높은 일치도를 보여주었으며, 가장 친한 친구의 경우 일치도는 더 높았다고 한다.

Hess와 Torney(1967)도 어떤 동료집단의 집회에 참가한 학생은 정치적

사태에 더 많은 관심을 표시하며, 정치나 현실문제에 관한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특정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교수준이 높아갈수록 친구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아간다는 점도 밝혀내고 있다.

확실히 정치규범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가치의 창조자로서 동료집단은 청소년기에 특별히 중요성을 갖는다. 청소년기의 동료관계는 성인기를 통하여서도 계속 사회화의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다른 정치성향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과 결속을 형성하는 것이 청소년기나 성년기에 정치성향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는 것이다.

#### (라) 대중매체

대중매체는 우리 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기술적 향상과 확대는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와 같은 전통적 사회구조가 약화됨으로써 정치정향의 형성자로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관되고 표준화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대중매체는 근대화된 사회일수록 사회화 도구로서 지배적이고 효과적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대중매체가 정치학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느냐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는 정치사회화에서 2차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대중매체가 정치태도의 1차적 형성자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대중매체는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과 일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Almond(1960)는 TV 프로그램의 시청량에 따라 정보인지량이 많아지나 일반적으로 TV의 시청량이 많을수록 정보인지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TV의 시청량이 많을수록 정보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호의적이며 행정부의 업무수행의 효과에 대해서도 호의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Greenstein(1965)은 이스라엘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매체의 정치사회화 기능을 대중매체의 TV 시청, 신문구독 등 매스미디어 이용은 정치행위의 자발성, 즉 정치효능감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신문구독은 정치적 관심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의지, 정치지식과도 상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우리 나라 연구에서도 정병구(1998)는 대중매체는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등장했다고 보고하였다. 그 중에서도 TV와 신문을 들고 있는데, TV의 영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실업계 학생이 일반계 학생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한다. 반면 신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렇게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중매체를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대중매체의 이용법이나 전달 내용을 잘 고려하여 편성하고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대중매체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사회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3) 정치사회화 결과로서 정치의식 형성

정치의식은 정치현상에 대한 인식·평가·태도를 총칭한다. 이러한 정치의식은 정치문화에 대한 수용과 반응의 과정 즉 정치사회화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어 나타나는 산출물이다. 따라서 정치의식은 정치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상호 변증법적인 교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 개인의 독특한 정치의식과 행동은 외부적이고 맥락적인 실재에 의해서 조건 지워지나 이 실재를 그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구성하는가에 개인의

정치의식과 행동의 독특성이 결정된다. 결국 정치사회화는 개인의 발달과 사회환경요소에 영향 받는 정치학습과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치사회적 정체성은 개인의 인지적·정의적 구조뿐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의 정체성에 의존한다(Sigel, 1989).

정치의식은 공동체에 관한 일을 이성적으로 질서 지우려고 하는 요구에 대한 일반적인 자각과 관련된다. 이성적인 질서지우기는 단순한 질서일 뿐 아니라 윤리적 질서, 정의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다. 이러한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뿐 아니라 타인의 자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의식의 이러한 두 가지 형태 즉 개인의 주관적인 인성과 국가 또는 공동체에 의한 집단자아에 대한 자각이 정치의식의 뿌리이다(Lea, 1982). 이러한 정치의식은 시민의 역할수행에 관계되기 때문에 시민성의 중심요소가 된다.

민주주의 발전은 의회제도나 선거제도 등의 여러 가지 정치제도와 절차의 정착, 이러한 제도와 절차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사회·경제발전,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의식 성숙 등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다. 제도와 절차, 사회와 경제발전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치의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박동서·김광웅, 1987).

이러한 정치의식은 다양한 하위요소로 구성되지만 이 중 정치적 신뢰, 정치적 관심도, 정치적 관용, 정치참여의식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시민들의 불신, 무관심, 비관용, 낮은 정치참여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4) 정치의식의 구성 요소

##### (가) 정치 효능감

정치 효능감이란 개인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능하리라고 믿



는 것으로 시민이 개인의 노력이나 시민들 간의 협조를 통해 바라는 바를 정부가 행하도록 하여 사회·정치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D. Easton과 J. Dennis(1967)는 정치적 효능감이란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고 하는 느낌인데, 즉 자신이 시민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느낌이며 변화를 초래함에 있어서 개개인의 시민이 한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 행사, 투표에 대한 효능감, 서명 운동의 효과, 학교생활에서의 개인적 효능감, 정치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정치적 효능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나) 정치 신뢰감

정치 신뢰감이란 정부, 정치인, 정치적 권위에 대한 하나의 평가적 자세로서 믿음과 관련된 감정을 말한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체제도 정치적 신뢰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정치적 신뢰는 정치체제의 산출 국면에 대한 정치정향으로써 신뢰점수가 높은 사람은 그가 정치적 투입과정에 참여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부가 국민의 편에서 활동한다고 믿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 내는데 기초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정치 제도의 유지 및 존속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정치 지도자, 정당, 법원의 판결, 국회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정치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다) 정치 참여도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들에게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치적 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시민들은 이와 같은 정치적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가 정책결정에 반영되어진다는 만족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참여적 정치문화는 민주정치 구조와 함께 정치질서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정치를 참여정치라고 부를 만큼 국민 각 계층의 효율적인 정치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다. 정치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 소외감이나 무관심이 쌓여 간다면, 민주정치를 파괴하게 되는 위험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투표권 행사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선거활동 참여유형에 따라 정치 참여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하여 정치참여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선거활동의 참여도를 비롯하여 투표에 대한 적극성 정도, 대중매체를 통한 정치적 관심도, 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참여감,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정도를 설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 (라) 정치 지식

정치지식이란 정치제도인 정치기구, 정치과정의 산출과정 및 투입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지식은 정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과 태도의 바탕이 되어줌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구조, 현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과 지식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정치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는 접근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치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달되는가에 관한 것이다(최지영, 1994). 전자가 정태적이고 전통적인 접근이라면, 후자는 동태적이고 발달심리학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는 정치의식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안병민(1979)은 제10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거참여를 한 부산지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선거참여도, 선거관심도, 국회와 정당 신뢰도 등을 조사하였다. 선거 참여도와 관심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국회와 정당신뢰도는 낮은 편이었다.

박동서·김광웅(1987)은 일반대중과 엘리트집단을 포괄하는 국민을 대상(일반대중 952명, 엘리트 1,470명)으로 민주정치의식에 관한 두 집단의 실태와 인식 및 그 차이를 연구 하였다. 민주정치의식은 인지, 감정과 인상, 신념, 평가로 구성되는 의식 차원과 민주주의의 기본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실천적 측면, 생활태도, 실현에 대한 전망으로 구성되는 대상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박종남(1997)은 신도시와 인근농촌의 초중고 학생 735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관해 연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치적 활동이나 사회운동에의 참여의지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선거를 통한 참여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정부에서 하는 일과 관료들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정치인에 대한 관용의식은 보통 수준이었다.

이종렬(1997)은 1994년(중·고생 1,440명)과 1995년(2,880명) 2번에 걸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관용성, 묵종성, 민주절차원리에 대한 태도, 정치신뢰감, 정치효능감 등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대한 종단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관용적이고 비묵종적이며 민주절차원리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정치신뢰감은 낮았으며 정치효능감은 중간 이상이었다.

박창규·김영하(1999)는 대구·경북지역 대학생(1997년 792명, 1998년 688명)을 대상으로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정당에 대한 인식, 선거에 대한 인식, 권력구조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인식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결과로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 주인의식, 정치인 인지도, 정치참여 의사 등이 낮아지고 있고 기존 정치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치선(1999)은 서울과 인근 신도시 고등학생 491명을 대상으로 국가의식, 시민생활과 준법의식, 정치적 신뢰와 관용의식, 국제관계와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국가의식, 정치참여의식, 시민생활과 준법의식, 국제관계와 통일의식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정치적 신뢰와 관용의식에 있어서는 부정적이었다.

김광웅·방은령(2001)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1차 1,230명, 2차 6,000명에 설문조사를 하고 3차로 100명에게 면접을 하여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그 형성요인을 연구하였다.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치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주 매개체는 텔레비전, 부모, 학교, 교사, 친구 순서로 나타났다.

이은진(2002)은 청소년인 중·고·대학생 387명의 민주주의의 기본내용인 국회, 정부, 선거, 다수결의 원칙, 자유에 대한 정치의식을 의미변별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국회, 정부, 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인식, 자유에 대해서는 약한 긍정적인 인

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의식의 내용에 관한 이상의 연구에서 정치의식의 내용으로 정치적 신뢰, 정치적 관심, 정치참여의식, 정치적 관용, 정치효능감, 정치현상에 대한 인식 등을 도출할 수 있다.

정치의식에 대한 동태적이고 발달심리학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그 형성과정을 연구한 것은 최지영의 연구(1994)이다. 최지영은 6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 111명을 대상으로 정치의식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정치의식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다른 연구와는 달리 발달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정치의식의 형성과 발달과정을 연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연구결과 정치의식의 발달 경향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선거에 대한 인식·참여도·관심도에 대한 연구는 있어도 선거활동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활동 참여가 어떤 정치의식 형성과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연구로서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 3. 참여의 교육적 효과

#### 가. 정치 참여의 개념

참여는 라틴어의 ‘par’에서 유래된 말로서 사전적인 의미는 ‘같이한다(share) 또는 부분을 취한다(take part)’는 뜻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보통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자 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이때 참여의 목적은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자인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의사 결정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소환이나 집회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법률 및 규칙의 제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진 행동이 참여이다(김대환, 1997). 참여를 가리키는 개념들은 때때로 강조점이나 주체에 따라,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공중 참여(public participation), 주민참여(residential participation)등으로 다양하게 쓰이지만 실제로 이들 간의 의미상 큰 차이는 없으며, 대체로 주권자인 시민이 정치공동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이승중, 1993)

참여의 개념은 아직까지 하나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으며, 학자마다 참여의 형태, 수준, 목적, 대상, 자발성 여부, 참여의 결과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세우고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P. J. Conge, 1988)

가장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대표적인 것이 Verva와 Nie의 개념이다. 이들은 참여를 “정책결정자의 충원 및 또는 정책에 다소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반 시민의 활동”이라고 보아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참여만을 그 대상으로 보았다. Verva와 Nie의 개념에는 정치에 대한 인지도나 신념, 비 관습적, 비제도적, 폭력적인 참여, 정부구조자체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참여, 동원, 의도하지 않은 참여의 결과 등을 모두 참여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P. J. Conge, 1988, 이성근, 1992). 또한 Sherril과 Vogler는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시민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참여를 정의하고 있는데(Sherril & Vogler, 1982: 홍영환, 1987 재인용) 여기에서의 참여도 공공정책에 관련되고 비제도적인 참여나 비자발적인 참여 등을 제외하고 있다. 즉, 이때의 참여 개념은 합법적이며,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의례적이거나 단순 지지를 위한 참여가



아닌 자발적·민주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의식과 같은 심리적 경향이 아닌 실제 행동만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참여만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의 개념을 매우 좁게 보고 있다.

위의 개념보다 포괄범위가 넓은 개념으로는 L. W. Milbraith와 M. L. Goel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참여를 “정부에 대한 영향력 또는 지지를 위한 시민의 활동”으로 정의하여 정부에 대한 지지활동을 참여의 범주에 제외한 Vera와 Nie의 개념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Milbraith & Goel, 1977: 이승중, 1993 재인용). 또한 참여를 합법적 활동과 비합법적 활동을 포함한 의도된 활동으로 본 Conway, Huntington과 Nelson, 등의 정의도 최협의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라 할 수 있다(P. J. Conge, 1988, 김명숙, 1986). 여기에는 정치참여의 형식적 또는 자치적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나 정치적 사건에만 관심을 두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관여 등도 포함된다.

참여에 대한 가장 넓은 개념은 합법적, 비합법적, 동원적, 비자발적 참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Kaase와 Marsh는 “시민참여란 정치적 기관을 매개로 한 정부기관과 사적 기관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비롯된 개념으로, 정치적 기관과 사적기관과의 상호작용”을 들어 시민의 일반적 참여행동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는 정부에 대한 지지나 폭력, 항의도 포함된다(Barnes, Samuel H. & Max Kaase et als. 1979). 또한 Booth와 Seligson도 정치참여를 공공재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부외적 부분에서의 참여와 의도하지 않은 참여의 결과도 포함시켜 넓은 범위에서 참여를 정의하고 있다(P. J. Conge, 1988).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정의로 볼 때, 정치참여란 시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공공의 이익추구를 위해, 넓게는 정치적 영역 전반에, 좁게는 정부 관료의 선택이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서 뚜렷한 목적을 가

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참여의 개념은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현실적 상황에 따라 그 바라보는 각도나 강조점이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에 대한 기존의 대체적인 개념정의에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참여의 주체는 ‘사회의 보통 구성원’ 즉 비 엘리트 시민이다. 이들은 특별한 정보나 다른 공식적 권력의 근원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의사결정의 권한을 참여를 통해 갖게 된다. 직업적인 의사결정자가 의무나 권한으로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참여가 되지 않는다.

둘째, 참여의 목적은 ‘공공의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공직자 선출 뿐 아니라 여러 형태로 의사 결정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소환, 집회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의식 하에 이루어지는 행동이 참여인 것이다.

셋째, 참여는 단순한 인식이나 태도가 아닌 명시적인 행위 혹은 활동이다. 참여는 대상에 대해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닌, 명목상의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형식적, 제도적 수준을 넘어서 공동의 문제와 자신의 생활을 연결시켜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주체적’ 행동의 형태라 할 수 있다.

## 나. 학생선거활동의 참여

정치참여를 일반시민들의 공공문제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고 보고, 직접



적인 행위나 행동을 전제로 한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정치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활동은 학생선거활동이라고 여겨진다.

학생선거활동이란 학생들이 학급구성원으로서, 또는 학교 전체 구성원으로서의 학교 공동체의 대표자 선출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학급 임원 선출, 학생회 임원 선출 등이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즉 학교의 공공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활동인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므로 학교의 다양한 활동 중 실제 정치 참여의 행위와 가장 유사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1) 선거활동 참여 유형

##### (가) 투표 참여

학생들의 선거활동 참여 중 가장 기본적인 참여 형태가 바로 투표활동이다. 실제 정치참여에 있어서 투표는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전체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의 형태를 띠고 있어 간접 참여 형태로 구분된다. 학교 선거활동에서도 투표는 같은 의미를 지니며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투표행위는 교육활동 중 하나로 교육과정에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거의 의무적인 행사로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투표에의 참여 여부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투표참여의 경험을 갖고 있게 된다.

##### (나) 선거 출마

학생 선거 활동 중 선거 출마 활동은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장, 부반장, 전교학생회장, 전교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으로 한정한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회 임원 선출 방식은

직선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혹은 학생들 사이의 추천을 통해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다) 선거 도우미

학생 선거 활동 중 선거 도우미 활동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선거홍보물 제작, 지지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 등하교 시간에 이루어지는 후보자 홍보활동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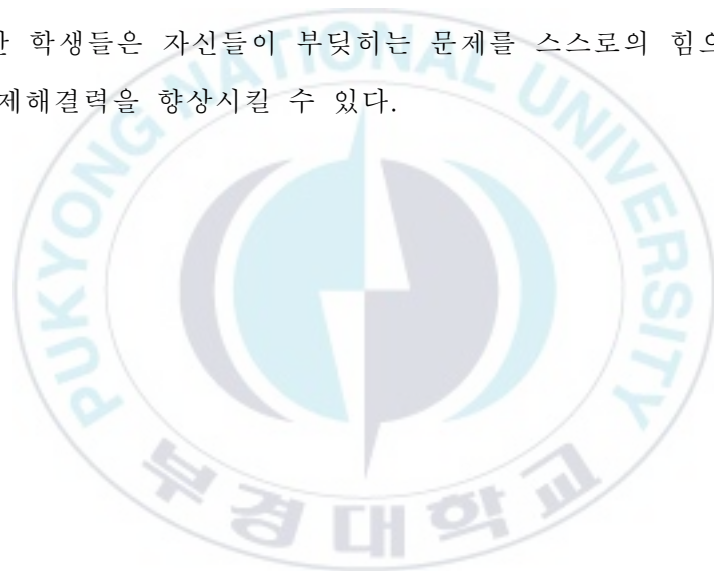
(라) 선거관리 위원

선거관리 위원은 학생 선거 활동의 관리를 담당하는 학생들로 학급 선거에서는 선거에 불출마한 학생 중 교사 지명, 학생 추천 방식으로 선정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교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전임 학생회장단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선거관련 공고와 합동유세 준비, 투표 진행 및 관리, 개표 요원 등으로 학생선거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관리하고 진행 한다.

**다. 학생선거활동 참여의 교육적 효과**

학생선거활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 경험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데 중요한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 민주 국가는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여 공공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는 없으나 궁극적으로 국가의 주인으로서 선거나 기타 공동체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참여정신이 필수적이다. 선거 활동에서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생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볼 수 있

다. 이렇게 볼 때 학생들은 미래의 자주적 시민으로 중요한 정치적 소양을 학생선거활동을 통해서도 쌓게 된다. 또한 직접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발표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여 언어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게 된다. 학생들은 선거활동을 하면서 학교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며, 공동체 현안 문제를 알아보게 되고 이에 적극적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그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여러 방안들 중에서 최적의 방안을 합의하여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들이 부딪히는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및 결과 분석

### 1. 연구 방법

#### 가. 연구 변인

##### (1) 종속 변인

종속 변인인 정치의식은 정치 효능감, 정치 신뢰감, 정치 참여도, 정치에 대한 지식으로 한정한다.

##### (2) 독립 변인

독립 변인은 학생선거활동 참여유형이며, 참여 유형은 직접적 참여 유형과 간접적 참여 유형으로 구분하다. 직접 참여유형은 선거 출마, 선거 도우미, 선거 관리위원으로 설정 한다. 간접참여 유형은 단순 투표참여로 설정한다.

####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활동 참여 정도에 따른 정치의식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인문계고등학교 6개교를

선정하였으며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의 비율을 각각 2개교씩 비율을 맞추었으며, 고등학교 선거활동 경험을 고려하여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측정 도구

변인의 측정 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의식을 측정한 국내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설문내용은 크게 학생선거활동의 참여유형과 정치 효능감, 정치 신뢰도, 정치 참여도, 정치지식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학생선거활동 참여유형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참여경험을 간접참여는 투표권만 행사한 경우, 직접참여는 선거에 출마한 경험, 선거활동 도우미 경험, 선거관리위원 활동경험으로 나누어 각각 학생들의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을 작성하였다. 정치 효능감을 측정한 부분에서는 정부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 행사, 투표에 대한 효능감 정도, 서명 운동의 효과, 학교생활에서의 개인적 효능감, 정치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을 묻는 문항을 작성하였다. 정치적 신뢰감을 측정한 부분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감, 정치지도자에 대한 신뢰감, 정당에 대한 신뢰감,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뢰감, 국회에 대한 신뢰감으로 측정 문항을 작성하였다. 정치적 참여도 부분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정치적 관심, 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의 적극성 정도, 선거 활동의 참여도, 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참여감,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 정도를 묻는 문항을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지식은 정당 의석수 현황,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 현황, 부처장관의 지위, 지역단체장명으로 구성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학생들의 선거활동 참여에 의한 정치의식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참여 전, 후 각각의 정치의식을 측정하여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학교생활의 특성상 해마다 특정 시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경험은 누적됨으로 학생들의 과거 경험을 유추하여 정치의식을 측정함으로써 학생선거활동 참여경험이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3)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질문지 자료처리를 SPSS 10.07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학생선거활동 참여가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모든 구성요소별 변인들에 따른 빈도(N)와 백분비(%)를 산출하고 그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명시하는 구성요소별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참여유형과 정치의식의 각 영역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가설의 설정

학생선거활동 참여가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 1. 선거출마 참여경험이 투표 참여 경험에 비해 정치의식 향상 효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선거운동 참여경험이 투표 참여 경험에 비해 정치의식 향상 효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선거관리위원 참여경험이 투표 참여 경험에 비해 정치의식 향상 효과가 높을 것이다.

## 2. 연구 결과 분석

### 가. 학생선거활동 참여유형에 따른 정치의식의 차이

#### (1) 학생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치적 효능감 차이 분석

학생들의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서 자신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설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분석 결과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부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 행사

구 분		내가 어른이 되더라도 정부가 하는 일에 별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지 않다.(효능감1)								X <sup>2</sup> = 31.585
		매우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	N	%	N	%	N	%	
간접참여	투표만 참여	18	7.6	106	44.9	93	39.4	19	8.1	Asymp.Sig. (2-sided) .002
	선거 출마	0	0	33	37.9	33	37.9	21	24.1	
직접참여	도우미	2	4.2	15	31.3	24	50.0	7	14.6	Valid-Cases 400/409
	관리 위원	3	10.3	5	17.2	17	58.6	4	13.8	
합계		23	5.7	159	39.7	167	41.9	51	12.7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부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설문 응답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접 참여한 학생들의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긍정 답변은 47.5% 이며, 직접 참여 학생 중 가장 적극적 참여 의사를 지닌 선거 출마 학생들의 긍정 답변은 62.0%, 도우미 활동을 한 학생은 64.6%, 관리위원 활동을 한 학생은 72.4%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선거활동에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한 학생들이 개인의 노력이나 시민들 간의 협조를 통해 바라는 바를 정부가 행하도록 하여 사회·정



치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더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 뿐 이라는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2>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투표에 대한 효능감 정도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뿐이다.(효능감2)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X <sup>2</sup> = 23.115
		N	%	N	%	N	%	N	%	
간접참여	투표만 참여	10	4.1	60	24.8	114	47.1	58	24.0	Asymp.Sig. (2-sided) .027
	선거 출마	2	2.3	11	12.6	57	65.5	17	19.5	
직접참여	도우미	0	0	12	25.0	25	52.1	11	22.9	Valid-Cases 406/409
	관리 위원	0	0	5	17.2	10	34.5	14	48.3	
합계		12	2.9	88	21.8	206	50.9	100	24.4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투표에 대한 효능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접 참여한 학생들은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투표 이외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71.1%이며, 직접 참여활동을 한 학생 중 선거 출마한 학생은 85.0%, 도우미 활동은 학생은 75.0%, 관리위원 활동은 학생은 82.8%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생선거활동에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한 학생들이 정부에 관여 할 수 있는 수단이 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직접 참여한 학생, 간접 참여한 학생 모두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정보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의사소통매체를 경험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여론 조성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설문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서명 운동의 효과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효능감3)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X <sup>2</sup> = 21.699
		N	%	N	%	N	%	N	%	
간접참여	투표만 참여	15	6.2	118	48.8	91	37.6	18	7.4	Asymp.Sig. (2-sided) .041
	선거 출마	12	13.8	51	58.6	20	23.0	4	4.6	
직접참여	도우미	6	12.5	29	60.4	12	25.0	1	2.1	Valid-Cases 406/409
	관리 위원	5	17.2	15	51.7	7	24.1	2	6.9	
합계		38	9.3	213	52.6	130	31.8	25	6.4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서명 운동의 효과에 대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접참여 유형 중 선거출마 학생은 서명운동이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데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72.4% 답하였으며, 도우미활동을 한 학생은 72.9%, 관리위원활동을 한 학생은 68.9%를 보인 반면 간접참여를 한 학생은 55%만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직접참여 학생이 간접참여 학생보다 서명 운동을 통하여 정부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앞 문항분석에서 본 것과 같이 직접 참여한 학생이 정부가 하는 일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수단이 단순히 투표뿐 만이 아니라 이번 문항에서 질의한 서명운동 등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급 회장이 잘 못하는 것은 그만의 책임이 아니라 선출해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라는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4>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에서의 개인적 효능감

학급 회장이 잘 못하는 것은 그만의 책임이 아니라 선출해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효능감4)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X <sup>2</sup> = 14.300
		N	%	N	%	N	%	N	%	
간접참여	투표만 참여	15	6.2	135	55.8	72	29.8	20	8.3	Asymp.Sig. (2-sided) .576
	선거 출마	9	10.3	51	58.6	22	25.3	4	4.6	
직접참여	도우미	2	4.2	33	68.8	11	22.9	2	4.2	Valid-Cases 405/409
	관리 위원	1	3.4	18	62.1	7	24.1	3	10.3	
합계		27	9.3	237	52.6	112	27.6	29	7.3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에서의 개인적 효능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결과 내용을 분석해보면 간접참여 학생은 38.1%가 책임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직접참여 학생은 선거 출마 학생 29.9%, 도우미 활동한 학생 27.1%, 선거 관리 위원 활동을 한 학생 34.4%로 간접참여 학생 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으로써 직접참여 학생이 학교생활에서의 개인적 효능감도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치 효능감의 마지막 설문인 정치는 너무나 복잡해서 나 같은 학생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면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치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

정치는 너무나 복잡해서 나 같은 학생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효능감5)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 22.572$
		N	%	N	%	N	%	N	%	
간접참여	투표만 참여	18	7.4	94	38.8	112	46.3	18	7.4	Asymp.Sig. (2-sided) .032
직접참여	선거 출마	2	2.3	24	27.6	46	52.9	15	17.2	
	도우미	2	4.2	15	31.3	23	47.9	8	16.7	Valid-Cases 406/409
	관리 위원	1	3.4	6	20.7	15	51.7	7	24.1	
합계		23	5.6	139	34.0	196	48.7	48	11.7	

정치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이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문한 응답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접참여 활동을 한 학생은 선거 출마 학생 70.1%, 도우미 활동을 한 학생 64.6%, 관리 위원 활동을 한 학생 75.8%가 학생들도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간접참여 활동을 한 학생은 51.7%만이 스스로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답하여 직접참여 활동한 학생들보다 약 20%정도의 차이가 나 직접참여 활동을 한 학생이 정치에 대한 개인적 효능감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신뢰감을 조사하고자 설문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라는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6>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

우리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신뢰감1)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 10.977$
		N	%	N	%	N	%	N	%	
간접참여	투표만 참여	4	1.7	38	15.9	135	56.5	62	25.9	Asymp.Sig. (2-sided) .531
	선거 출마	1	1.1	21	24.1	39	44.8	26	29.9	
직접참여	도우미	0	0	13	27.1	24	50.0	11	22.9	Valid-Cases 406/409
	관리 위원	1	3.4	5	17.2	14	48.3	9	31.0	
합계		6	1.5	77	19.0	212	52.5	108	27.1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간접참여 활동을 한 학생 중 82.4% 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고, 직접참여 활동을 한 학생 중 선거 출마 경험 학생 74.7%, 도우미 활동 경험 학생 72.9%, 관리위원 활동 경험 학생 79.3%가 정부 정책에 불신감을 보이고 있다. 선거활동 참여 유형과 관계없이 많은 학생들이 정부정책에 불신감을 드러냄으로서 학생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못 미더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민감한 대학입시관련 정책의 잦은 변경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7>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신뢰감2)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 7.735$
		N	%	N	%	N	%	N	%	
간접참여	투표만 참여	4	1.7	18	7.4	125	51.7	95	39.3	Asymp.Sig. (2-sided) .806
	선거 출마	1	1.1	4	4.6	38	43.7	44	50.6	
직접참여	도우미	0	0	2	4.2	28	58.3	18	37.5	Valid-Cases 406/409
	관리 위원	0	0	2	6.9	12	41.4	15	51.7	
합계		5	1.2	26	6.4	203	50.1	172	42.3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간접참여 경험을 한 학생은 91.0%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직접참여 경험을 한 학생도 선거 출마 학생 94.3%, 도우미 경험을 한 학생 95.8%, 관리위원을 경험한 학생 92.4%가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선거출마 경험을 한 학생의 50.6%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는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8>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당에 대한 신뢰감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신뢰감3)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X <sup>2</sup> = 13.456
		N	%	N	%	N	%	N	%	
간접참여	투표만 참여	13	5.4	95	39.4	108	44.8	25	10.4	Asymp.Sig. (2-sided) .337
	선거 출마	6	6.9	34	39.1	40	46.0	7	8.0	
직접참여	도우미	2	4.2	24	50.0	18	37.5	4	8.3	Valid-Cases 406/409
	관리 위원	3	10.3	10	34.5	9	31.0	7	24.1	
합계		24	5.9	163	40.0	175	43.4	43	10.8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당에 대한 신뢰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접참여 경험을 한 학생은 정당에 대한 신뢰감에 55.2%가 긍정적 반응 보였고, 직접참여 경험의 선거출마 학생은 54.0%, 도우미 경험의 학생은 45.8%, 관리위원 경험의 학생은 55.1% 긍정적 반응 보였다.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선거활동 참여 유형과 관계없이 부정적 시각보다 긍정적 시각이 조금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신뢰할 수 있다.” 라는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접 참여한 학생은 57%가 법원의 판결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고, 직접 참여한 학생 중 선거출마 경험을 한 학생 43.1%, 도우미 활동을 경험한 학생 45.9%, 관리위원 활동을 경험한 학생 44.8%가 법원의 판결을 신뢰한다고 응답 하였다. 간접 참여한 학생들이 법원의 판결을 직접 참여한 학생들 보다 조금 더 신뢰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III-9>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감

법원의 판결은 신뢰할 수 있다.(신뢰감4)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X <sup>2</sup> = 16.729
		N	%	N	%	N	%	N	%	
간접참여	투표만 참여	7	2.9	131	54.1	92	38.0	12	5.0	Asymp.Sig. (2-sided) .160
	선거 출마	4	4.7	33	38.4	44	51.2	5	5.8	
직접참여	도우미	1	2.1	21	43.8	24	50.0	2	4.2	Valid-Cases 406/409
	관리 위원	0	0	13	44.8	11	37.9	5	17.2	
합계		12	2.9	198	48.8	171	42.4	24	5.9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있다.” 라는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10>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국회에 대한 신뢰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있다.(신뢰감5)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X <sup>2</sup> = 7.475
		N	%	N	%	N	%	N	%	
간접참여	투표만 참여	3	1.2	68	28.2	129	53.5	40	16.6	Asymp.Sig. (2-sided) .963
	선거 출마	0	0	26	29.9	44	50.6	17	19.5	
직접참여	도우미	0	0	11	22.9	27	56.3	10	20.8	Valid-Cases 405/409
	관리 위원	0	0	6	20.7	17	58.6	6	20.7	
합계		3	.7	111	27.2	217	53.9	73	17.9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국회에 대한 신뢰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접 참여 경험을 한 학생 29.4%, 직접 참여 경험한 학생 중 선거 출마한 학생 29.9%, 도우미



활동한 학생 22.9%, 관리 위원 활동한 학생 20.7%만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관계없이 많은 학생들은 국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나타 내었다.

“뉴스를 볼 때 정치 뉴스에 가장 관심을 갖는다.” 라는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11>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대중매체를 통한 정치적 관심

뉴스를 볼 때 정치 뉴스에 관심을 갖는다.(참여도1)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X <sup>2</sup> = 7.370
		N	%	N	%	N	%	N	%	
간접참여	투표만 참여	7	2.9	45	18.6	123	50.8	67	27.7	Asymp.Sig. (2-sided) .832
	선거 출마	1	1.1	21	24.1	48	55.2	17	19.5	
직접참여	도우미	1	2.1	9	18.8	26	54.2	12	25.0	Valid-Cases 405/409
	관리 위원	1	3.4	5	17.2	17	58.6	6	20.7	
합계		10	2.4	80	19.6	214	52.6	102	25.4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대중매체를 통한 정치적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접 참여 경험을 한 학생 21.5%, 직접 참여 경험한 학생 중 선거 출마한 학생 25.2%, 도우미 활동한 학생 20.9%, 관리 위원 활동한 학생 20.6%가 대중매체를 통한 정치적 관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회장 선거에서 나 하나쯤은 빠져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 한다.” 라는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12>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투표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도

학생회장 선거에서 나 하나쯤은 빠져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참여도2)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chi^2 = 22.598$
		N	%	N	%	N	%	N	%	
간접참여	투표만 참여	20	8.3	100	41.5	85	35.3	36	14.9	Asymp.Sig. (2-sided) .031
	선거 출마	4	4.6	19	21.8	50	57.5	14	16.1	
직접참여	도우미	5	10.6	15	31.9	21	44.7	6	12.8	Valid-Cases 404/409
	관리 위원	1	3.4	13	44.8	11	37.9	4	13.8	
합계		30	7.6	147	36.1	167	41.3	60	15.0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투표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접 참여 경험을 한 학생 50.2%가 투표권을 소중하게 여긴 반면에 직접 참여 경험을 한 학생 중 선거 출마한 학생 73.6%, 도우미 활동한 학생 57.5%, 관리 위원 활동한 학생 51.7%가 투표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직접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간접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 보다 투표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은 투표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다른 유형의 선거활동 경험자 보다 약 20% 정도 높게 나타났다.

“만약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 있다.” 라는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13>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투표에 대한 적극성 정도

만약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 있다.(참여도3)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X <sup>2</sup> = 13.420
		N	%	N	%	N	%	N	%	
간접참여	투표만 참여	118	49.0	97	40.2	22	9.1	4	1.7	Asymp.Sig. (2-sided) .339
	선거 출마	57	65.5	24	27.6	3	3.4	3	3.4	
직접참여	도우미	26	54.2	19	39.6	3	6.3	0	0	Valid-Cases 405/409
	관리 위원	13	44.8	11	37.9	4	13.8	1	3.4	
합계		213	52.9	151	37.3	32	7.8	8	2.0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투표에 대한 적극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접 참여 경험을 한 학생 89.2%, 직접 참여 경험한 학생 중 선거 출마한 학생 93.1%, 도우미 활동한 학생 93.8%, 관리 위원 활동한 학생 82.7%가 투표에 대한 적극성을 보였다. 이는 선거활동 참여 유형과 관련 없이 많은 학생들이 투표권 행사에 적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법이 제정 된다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을 고치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는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참여감에 대한 설문 응답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접 참여한 학생들의 법률을 개정 의지는 78.8%가 노력할 것이라 응답하였고, 직접 참여한 학생들의 법률 개정의지는 선거 출마 학생 88.4%, 도우미 활동을 한 학생 87.3%, 관리위원 활동을 한 학생 75.9%가 노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직접 참여한 학생들이 간접 참여한 학생들 보다 잘못된 법률 개정 참여 의지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14>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참여감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법이 제정 된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고치도록 노력한다.(참여도4)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X <sup>2</sup> = 23.757
		N	%	N	%	N	%	N	%	
간접참여	투표만 참여	66	27.5	123	51.3	47	19.6	4	1.7	Asymp.Sig. (2-sided) .022
	선거 출마	40	46.5	36	41.9	10	11.6	0	0	
직접참여	도우미	13	27.7	28	59.6	5	10.6	1	2.1	Valid-Cases 402/409
	관리 위원	4	13.8	18	62.1	5	17.2	2	6.9	
합계		123	30.6	205	50.9	67	16.8	7	1.7	

“학교에서 친구들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라는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15>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치 문제에 대한 토론 정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참여도5)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X <sup>2</sup> = 10.598
		N	%	N	%	N	%	N	%	
간접참여	투표만 참여	4	1.7	27	11.3	120	50.0	89	37.1	Asymp.Sig. (2-sided) .564
	선거 출마	3	3.5	15	17.4	46	53.5	22	25.6	
직접참여	도우미	3	6.3	4	8.3	21	43.8	20	41.7	Valid-Cases 403/409
	관리 위원	1	3.4	3	10.3	14	48.3	11	37.9	
합계		11	2.7	49	12.1	201	49.9	142	35.3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치 문제에 대한 토론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접 참여 경험을 한 학생 13.0%, 직접 참여 경험한 학생 중 선거 출마한 학생 20.9%, 도우미

활동한 학생 14.6%, 관리 위원 활동한 학생 13.7%가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선거활동 참여 유형과 관련 없이 많은 학생들이 정치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의 정치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16> 선거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정치 지식 인지 정도

구 분		간접 참여		직접 참여			합계	X <sup>2</sup> -Value 유의수준검증
		투표만 참여	선거 출마	도우미	관리 위원			
정당	인지	N	144	69	34	20	267	X <sup>2</sup> = 11.846
		%	60.8	79.3	70.8	69.0	66.3	
	미인지	N	93	18	14	9	134	Asymp.Sig. (2-sided) .019
		%	39.2	20.7	29.2	31.0	33.7	
선거	인지	N	132	65	32	18	247	X <sup>2</sup> = 11.801
		%	54.5	74.7	66.7	62.1	60.9	
	미인지	N	110	22	16	11	159	Asymp.Sig. (2-sided) .019
		%	45.5	25.3	33.3	37.9	39.1	
국회	인지	N	126	57	30	12	225	X <sup>2</sup> = 11.163
		%	54.5	67.9	68.2	42.9	58.5	
	미인지	N	105	27	14	16	162	Asymp.Sig. (2-sided) .025
		%	45.5	32.1	31.8	57.1	41.5	
내각	인지	N	34	23	6	5	68	X <sup>2</sup> = 7.839
		%	14.9	27.4	13.0	20.0	17.7	
	미인지	N	194	61	40	20	315	Asymp.Sig. (2-sided) .098
		%	85.1	72.6	87.0	80.0	82.3	
자치	인지	N	153	61	31	15	260	X <sup>2</sup> = 4.772
		%	64.6	71.8	67.4	53.6	65.4	
	미인지	N	84	24	15	13	136	Asymp.Sig. (2-sided) .311
		%	35.4	28.2	32.6	46.4	34.6	

현재 우리나라 정당 중 의석수를 제일 많이 확보한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정치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접 참여 경험을 한 학생은 60.8%가 우리나라 정당 중 의석수가 제일 많은 정당을 한나라당으로 인지 하고 있는 반면 직접 참여 경험한 학생 중 선거 출마한 학생 79.3%, 도우미 활동한 학생 70.8%, 관리 위원 활동한 학생 69.0%가

한나라당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참여 경험을 한 학생들이 간접참여 경험을 한 학생들보다 우리나라 정당 활동에 관한 관심과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몇 년도에 실시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정치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접 참여 경험을 한 학생은 54.5%가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올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반면, 직접 참여 경험한 학생 중 선거 출마한 학생 74.7%, 도우미 활동한 학생 66.7%, 관리 위원 활동한 학생 62.1%가 대통령 선거가 올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 활동에 직접참여한 학생일수록 선거관련 관심과 지식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국회는 몇 대 국회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정치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접 참여 경험을 한 학생은 54.5%가 2007년 국회가 18대 국회임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직접 참여 경험한 학생 중 선거 출마한 학생 67.9%, 도우미 활동한 학생 68.2%, 관리 위원 활동한 학생 42.9%가 2007년 국회가 18대 국회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활동에 직접참여 한 학생일수록 국회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부 부처장관 중 부총리급 장관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정치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접 참여 경험을 한 학생은 14.9%가 부처장관들의 직위에 대한 지식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선거활동에 직접 참여한 학생 중 선거 출마한 학생은 27.4%, 도우미 활동한 학생은 13.0%, 관리 위원 활동한 학생은 20.9%가 부처장관들의 직위에 대한 지식을 인지하고 있었다.

광역자치 단체장의 인명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정치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접 참여 경험을 한 학생은 64.6%가 부산



광역시 시장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선거활동에 직접 참여한 학생 중 선거 출마한 학생은 71.8%, 도우미 활동한 학생은 67.4%, 관리 위원 활동한 학생은 53.6%가 부산광역시 시장의 이름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장명에 대한 인지정도는 선거활동 참여와 관계없이 많은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나. 학생선거활동 참여유형과 정치의식의 상관관계

학생선거활동 참여가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선거출마 참여경험이 투표 참여 경험에 비해 정치의식 향상 효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선거도우미 참여경험이 투표 참여 경험에 비해 정치의식 향상 효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선거관리위원 참여경험이 투표 참여 경험에 비해 정치의식 향상 효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III-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III-17> 선거활동 참여 유형과 정치의식의 상관관계

참여유형 \ 정치의식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신뢰감	정치적 참여도	정치지식
투표만참여-선거출마	.255**	-.041	.206**	.231**
투표만참여-도우미	.170**	-.022	.036	.108
투표만참여-선거관리위원	.191**	-0.76	-.029	.01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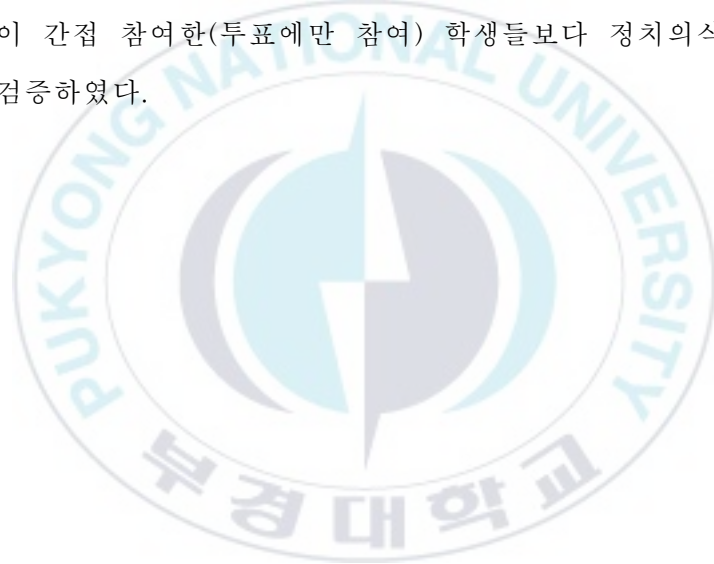
[가설1. 선거출마 참여경험이 투표 참여 경험에 비해 정치의식 향상 효과가 높을 것이다.] 검증에서는 선거출마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이 투표만 참여한 학생보다 정치적 효능감( $r=.255, p<.01$ ), 정치적 참여도( $r=.206, p<.01$ ), 정치지식( $r=.231, p<.01$ )에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정치적 신뢰감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선거활동에 선거출마 한 참여경험을 한 학생일수록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참여도, 정치지식이 투표에만 참여한 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적 신뢰감은 매우 낮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 선거도우미 참여경험이 투표 참여 경험에 비해 정치의식 향상효과가 높을 것이다.] 검증에서는 정치적 효능감( $r=.170, p<.01$ )에서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학생선거활동에서 도우미로 활동 한 학생일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투표에만 참여한 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적 신뢰감은 매우 낮은 부(-)의 상관관계, 정치적 참여도와 정치지식은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3. 선거관리위원 참여경험이 투표 참여 경험에 비해 정치의식 향상

효과가 높을 것이다.] 검증에서는 정치적 효능감( $r=.191, p<.01$ )에서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학생선거활동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한 학생일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투표에만 참여한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적 신뢰감과 정치적 참여도는 매우 낮은 부(-)의 상관관계, 정치지식은 매우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 결과 학생선거활동에 직접 참여한(선거출마, 도우미, 선거관리위원) 학생들이 간접 참여한(투표에만 참여) 학생들보다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생선거활동 참여가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거활동 중 투표에만 참여한 학생을 간접참여 학생으로, 선거에 출마한 학생과 선거 도우미 활동을 한 학생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한 학생을 직접참여 학생으로 나누어 직접참여 한 학생이 간접참여를 한 학생보다 정치의식 향상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 결과 가설1, 가설2, 가설3 모두 입증되어 본 연구 가설은 유의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분석된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가설은(선거출마 참여경험이 투표 참여 경험에 비해 정치의식 향상 효과가 높을 것이다) 선거 출마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이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참여도, 정치지식에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입증되었으며, 두 번째 가설은(선거도우미 참여경험이 투표 참여 경험에 비해 정치의식 향상 효과가 높을 것이다) 선거 도우미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이 정치적 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입증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설도(선거관리위원 참여경험이 투표 참여 경험에 비해 정치의식 향상 효과가 높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이 정치적 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가설을 입증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생선거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정치의식 향상 효과가 높게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다 적극적 참여 활동일 경우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학생들의 투표 참여의 경우, 사회에서의 투표와 달리 학교 교육과정의 한 부

분으로 구성 되어 있는 특징으로 인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행위라기보다는 의무적인 교육행위 중 하나라는 의미가 강하였기 때문에 투표에만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경험에 대한 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검증을 통해 밝혀진 학생선거활동의 효과는 앞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교육의 활성화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선거활동은 교과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으며, 실제 활동 내용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학생선거활동 참여가 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 기존의 강의식 정치교육에서 벗어난 직접 참여 형태의 교육이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앞으로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다양한 참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의 선거활동 참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참여 전과 후 각각의 정치의식을 측정해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학교 생활의 특성상 해마다 특정 시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경험은 누적됨으로 학생들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의식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한계점과 관련하여 학생선거활동 참여가 지니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로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의 지속적인 태도 변화를 알아보는 시계열적 분석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 공정미(2005). “교수·학습 방법이 정치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 인천광역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 곽한영(2004). “촛불시위 참여가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김광웅·방은령(2001). 『한국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형성요인』, 서울: 집문당
- 김병찬(1993). “학교교육과 정치태도의 관련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학교.
- 백연(2006). “청소년 정치의식 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신장섭(1993). “중등학교 자치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 어수영(1986). 『현대 일본 정치론』, 서울: 법문사.
- 이순형(1994). 『정치사회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 이선미(2002).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관한 변인 연구 - 수도권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대학교.
- 이해천(1985). “청소년들의 민주정치에 대한 태도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정규열(1998). “고등학교 학생들의 민주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영태(1997).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 한배호·어수영(1987). 『한국정치문화』, 서울: 법문사.
- 박종남(1997).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정치사회화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 서위태(1989).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청소년개발원(2002). 『청소년 심리학』. 서울: 서원.
- Bar-Tal, Daniel and Saxe, Leonard(1990). Acquisition of Political Knowledge: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in Ichilov, O.(ed.), *Political Socialization, Citizenship Education, and Democrac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16-134
- Barnes, Samuel H. & Max Kaase et als(1979).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Dawson, R. E., Prewitt, K. and Dawson, K. S.(1977).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Finkel, Steven E.(1985). "Reciprocal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fficacy: a pane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9(4).
- 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a(1966). 『*The Civic Culture*』, Boston: Little, Brown & Co.
- Inglehart, Ronald(1990). *Cultural Shift in Advanced Industr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ilbrath, Lester W. and M. 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Nagel. J. (1987). *Participat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Verba, Sidney, Norman H. Nie, and Jae-On Kim.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청소년들의 학생선거활동참여가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 조사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 설문지 내용은 여러분의 평소 생각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답에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평상시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문항에 따라 해당 사항에 "V"해주시면 됩니다.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를 위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 4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연구자 - 전병건

1. 학생은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반장, 부반장,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등)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 1-1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 2번으로 가십시오)

1-1. 학생이 투표에 참여한 이유는?

- ① 투표는 권리이기 때문에 참여 ( )
- ② 투표는 의무이기 때문에 참여 ( )
- ③ 교사의 지시에 따라 참여 ( )
- ④ 지지할 후보가 있기 때문에 참여 ( )

2. 학생은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 이외의 선거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반장, 부반장,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선거에 출마 or 선거활동 도우미로 활동 or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 or 기타)

- ① 있다 ( ) (☞ 2-1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 ) (☞ 3번으로 가십시오)

2-1. 학생의 선거 활동 참여유형은?

- ① 반장, 부반장,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선거에 출마 ( )  
② 선거활동 도우미로 활동 ( )  
③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 ( )  
④ 기타 ( )

2-2. 위의 선거 활동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 ) ② 아니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그렇다 ( ) ⑤ 매우 그렇다 ( )

2-3. 자신의 활동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 ② 불만족 ( ) ③ 보통 ( )  
④ 만족 ( ) ⑤ 매우 만족 ( )

2-4. 선거 활동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1~2일 ( ) ② 3~4일 ( ) ③ 5~7일 ( ) ④ 2주 ( ) ⑤ 2주 이상 ( )

3. 내가 어른이 되더라도 정부가 하는 일에 별로 영향력을 행사 할 것 같지 않다.

-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런 편이다 ( ) ③ 그렇지 않다 (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4.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뿐이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런 편이다 ( ) ③ 그렇지 않다 (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5.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런 편이다 ( ) ③ 그렇지 않다 (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6. 학생회장이 잘 못하는 것은 그만의 책임이 아니라 선출해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런 편이다 ( ) ③ 그렇지 않다 (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7. 정치는 너무나 복잡해서 나 같은 학생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런 편이다 ( ) ③ 그렇지 않다 (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8. 우리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런 편이다 ( ) ③ 그렇지 않다 (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9.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런 편이다 ( ) ③ 그렇지 않다 (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10.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런 편이다 ( ) ③ 그렇지 않다 (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11. 법원의 판결은 신뢰할 수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런 편이다 ( ) ③ 그렇지 않다 (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12.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을 만들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런 편이다 ( ) ③ 그렇지 않다 (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13. 뉴스를 볼 때 정치 뉴스를 가장 먼저 본다.

-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런 편이다 ( ) ③ 그렇지 않다 (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14. 학생회장선거에서 나 하나쯤은 빠져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런 편이다 ( ) ③ 그렇지 않다 (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15. 만약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런 편이다 ( ) ③ 그렇지 않다 (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16.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법이 제정 된다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을 고치도록 노력할 것이다.

-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런 편이다 ( ) ③ 그렇지 않다 (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17. 학교에서 친구들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런 편이다 ( ) ③ 그렇지 않다 (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18.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 중 의석수를 제일 많이 확보한 정당은?

- ① 열린우리당 ( ) ② 한나라당 ( ) ③ 민주노동당 ( ) ④ 민주당 ( )

19.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몇 년도인가?

- ① 2007년 ( ) ② 2008년 ( ) ③ 2009년 ( ) ④ 2010년 ( )

20. 2007년 국회는 몇 대 국회인가?

- ① 17대 국회 ( ) ② 18대 국회 ( ) ③ 19대 국회 ( ) ④ 20대 국회 ( )

21. 부총리급이 아닌 장관은?

- ① 재정경제부장관 ( )                      ②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  
③ 과학기술부장관 ( )                      ④ 법무부장관 ( )

22. 현 부산광역시 시장의 이름은 무엇인가? ( )

